

## 尊經閣藏書에 관한 一考察

李 春 熙\*

### ( 一 )

尊經閣은 李朝時代의 最高學府인 成均館에 所屬되었던 當朝 唯一의 大學 圖書館이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教育, 文化는 勿論이오, 特히 圖書와 圖書館을 研究함에 있어 尊經閣이 차지하고 있는 位置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尊經閣에 關한 資料가 너무 적어서 그 全貌를 把握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구나 時間上의 制約으로 不足한 資料나마 充分한 調査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本稿에서는 다만 藏書를 中心으로 한 尊經閣의 片鱗을 甲午更張(1894)까지 年代順으로 살펴 보는데 끄치고, 本閣의 成立, 職制, 收書와 納本 그밖에 圖書館으로서의 諸機能에 대한 考察은 後日의 機會로 미루기로 하겠다<sup>1)</sup>.

### ( 二 )

成均館의 藏書는 創建初期부터 蒐集 保管하여 온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本格的인 蒐集保管 및 貸出은 教育機關으로서의 圖書館 面貌를 갖추기 시작한 卽 尊經閣이 建置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成均館藏書의 蒐集·保管의 歷史는 尊經閣 建置年代를 기점으로 하여 前後 兩期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便宜上 이를 좀 더 細分하면 다음과 같이 5期로 나눌 수 있다.

第 1 期 太祖 7 年(1398)—成宗 6 年(1475)

第 2 期 成宗 6 年(1475)—中宗 9 年(1514)

第 3 期 中宗 9 年(1514)—仁祖 4 年(1626)

第 4 期 仁祖 4 年(1626)—高宗 31 年(1894)

第 1 期는 尊經閣이 創建되기 以前 卽 太學으로서 獨立된 정규 圖書館 建物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時代로 圖書館 創建을 爲한 準備期요 胎動期라고 할 수 있겠다. 이 時代에 冊이 어느 程度 있었는지 確實한 것은 알 수

\*成均館大學校教授.

1) 成宗實錄, 卷五十, 五年甲午十二月癸未條.

없으나, 成宗 5年 12월에 尊經閣의 創設을 建議한 韓明澮가 「今藏書鮮少學者病焉」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이 分明하다. 이 보다 앞선 太宗 때에도 역시 冊은 적었던 것 같다. 太宗實錄에 의하면 謝恩使 成石璘이 明帝 앞에 나아가 한말 가운데 「元子 역시 年 10才가 되어 成均館에 入學하였으나, 항상 書冊이 적어 困難을 받고 있다」<sup>2)</sup>고 하였으니 이 때에도 成均館에는 書冊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世祖 때에도 또한 成均館의 儒生들이 書籍을 얻어 보기가 어려워 梁誠之에게 命하여 藝文館에 所藏되고 있는 書冊을 刊行토록 한 일이 있었다<sup>3)</sup>.

위의 몇가지 例에서 이 時期에는 成均館에 書冊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量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書籍의 계속적인 不足 現象이 儒生들의 勉學에 많은 곤란을 주고, 教育上으로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教育機關에 冊이 없다는 것은 마치 養兵所의 武器庫에 武器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韓明澮의 圖書館 建立을 위한 建議은 이와 같은 累積된 教育上의 弊端을 解消하려는데 그 眞意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成均館이 教育機關으로서 처음으로 圖書館施設을 두게 된 것은 太學이 崇教坊에 자리 잡은 後 77年이 지난 即 成宗 6年이니, 이는 우리 나라 教育史上 特히 圖書館史上 매우 重大한 意義를 지닌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尊經閣의 成立은 韓明澮의 建議로 이룩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 80年에 가까운 긴 歲月을 두고 書籍의 不足으로 달미암은 儒生들의 고통과 教育上의 모순이 累積되어 내려왔다는 事實 即 그러한 歷史의 背景이 있으므로 해서 또한 可能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成均館에 書籍이 가장 많았던 때도 尊經閣이 創建된 直後이었다. 이 때부터 尊經閣이 原因모를 火災로 灰燼되던 中宗 9年까지를 第2期로 잡아 보았다. 第2期는 勿論 尊經閣의 創建期이기도 하지만 文字 그대로 黃金期이기도 하였다.

### (三)

文獻備考에는 尊經閣 創設 當時의 書籍狀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 「元子亦年十歲。入學成均。常患書冊之少」—太宗實錄, 卷六, 三年癸未八月壬申條.

3) 「又諸生難得書籍。命梁誠之。錄藝文館所藏書籍。以次刊行」—增補文獻備考, 卷二百六學校考五, 興學, 世祖五年條.

「成宗六年秋 建尊經閣 于明倫堂北 賜內藏五經四書各十件 又諭典校署及八路 隨書板所在 打印粧緘以送 於是 經史百家諸子雜書 并前本館所儲 無慮數萬卷 令司藝學正各一員 掌出納」<sup>4)</sup>

經史·百家諸子·雜書와 아울러 前부터 成均館에 所藏되어 내려온 冊을 모두 합쳐서 무려 數萬卷에 達했다고 하니, 相當히 많은 量의 圖書를 備置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勿論 위에 적혀 있는 數萬卷이라는 數字를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 때문이다. 첫째로는 數量을 말할 때 誇張된 表現이 一般的인 通例로 되어 내려왔다는 點이고, 둘째는 文獻備考에 「并前本館所儲 無慮數萬卷」이라고 하여 마치 前부터 成均館에 傳存되어 내려온 書冊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이 記述하고 있으나,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事實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다. 韓明澮가 「今藏書鮮少」라고 하여 建議한 것이 成宗 5年 12月로서 尊經閣이 建立되기 約 10개월 前이니, 不過 一年 未滿에 尊經閣의 藏書가 數萬卷에 達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셋째로는 尊經閣 創建 當時의 藏書狀況에 關한 그 밖의 記錄들과 比較해 볼 때 꼭 一致되어야 할 下賜된 冊數마저도 相異하다는 點이다. 成宗 6年 가을의 尊經閣 藏書量을 傳해주고 있는 또 다른 記錄으로는 이밖에도 太學志와 成宗實錄이 있다(〈表 1〉參照). 太學志 亦是 「數萬卷」이라고 記載하고 있는 것은 前記 文獻備考의 記錄과 一致하고 있으나, 內藏의 圖書를 下賜한 冊數에 있어서는 「各一百卷」<sup>5)</sup>으로 나타나 있어, 文獻備考의 「各十件」과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成宗實錄에는 全體의 冊數를 나타낸 記錄은 없으나 賜書된 冊數에 關한 記錄이 다음과 같이 「各四十件」으로 나타나고 있다.

「先是 賜四書五經 各四十件 于成均館 至是 同知事洪敬孫等 率儒生上箋 陣謝」<sup>6)</sup>

이와 같이 確實한 記載가 可能한 內賜의 冊數에 있어서도 세가지 文獻이 다 相異한 記錄을 하고 있음으로, 하물며 全體의 藏書量을 표시하고 있는 「數萬卷」이라는 數字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信憑性이 稀薄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뭏든 額面 그대로의 數字를 다 받아 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當時의 諸與件으로 보아 相當히 많은 量의 圖書를 收藏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 또한 尊經閣은 藏書蒐集의

4) Ibid., 卷二百三, 學校考二, 太學二, 成宗六年條.

5) 太學志, 下編, 卷之七, 書籍條.

6) 成宗實錄, 卷六十, 六年乙未十月壬辰條.

〈表 1〉

尊經閣創建初期 頒賜書冊數比較

年 度	書 名	冊 數			備 考
		實錄	文獻備考	太學志	
成宗 6 年秋 (1475)	大 中 學	40部	10部	100部	太學志에는 左 記四書五經 以 外에도 「諸子百 家書各一百件」 이라고 하였다.
	論 庸	〃	〃	〃	
	孟 語	〃	〃	〃	
	詩 子	〃	〃	〃	
	書 經	〃	〃	〃	
	周 易	〃	〃	〃	
成宗 7 年11月 (1476)	春 禮	〃	〃	〃	文獻備考와 太 學志에는 成宗7 年條의 記錄이 없다.
	性 理 大 全	40部			
		〃			
		30部			
		〃			
		〃			

必要性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圖書館이니만큼 創建을 계기로 많은 數의 冊을 蒐集保管 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많은 數의 書籍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當時 成均館儒生들에게 있어서도 이는 큰 慶事가 아닐 수 없었다. 徐居正의 尊經閣記에 「館官諸生 咸蹈舞相慶」<sup>7)</sup>이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當時 그 만큼 書冊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尊經閣藏書의 基本圖書는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四書五經 및 諸史等 當時 儒生들의 基本教科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基本圖書들은

7) 徐居正撰, 四佳文集, 卷九, 尊經閣記.

그 冊數에 있어서도 數十部씩이나 되어 다른 書籍들 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當時 儒生들의 需要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書籍의 不足現象은 尊經閣 設立後 많이 해소 되기는 하였지만 그 需要의 半에도 未達되고 있었다. 當時의 學生數를 100 名으로 보고<sup>8)</sup>, 基本圖書의 各冊數를 成宗實錄에 나타난 數字 40 冊으로 擇한다면 그 比率는 約 40% 밖에는 되지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印刷術이 發達하지 못하였던 當時의 事情으로서는 學生들 自身이 學習에 必要한 書籍을 모두 具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書籍의 貸出도 매우 頻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以後 歷代를 통하여 尊經閣의 書冊이 자주 紛失되는 事例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書籍의 需要가 높았다는 것을 意味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基本圖書 以外の 書籍으로는 性理全書, 心經等 性理學中心의 儒家의 書들이었으며, 百家諸子·雜書가 數萬卷이라고는 하였지만 이 中에서도 佛經은 勿論 老莊 및 其他 雜流의 書는 다음과 같은 學습에 依해서도 없었음이 확실하다.

「諸生讀書 先明義理 通達萬變 不須徒事章句牽制文義 常讀四書五經及諸史等書 不挾莊老佛經雜流百家子集等書 違者罰」<sup>9)</sup>

그리고 農學·醫學等의 技術書籍도 또한 地方의 各書院文庫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혀 收藏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尊經閣의 藏書는 四書五經等教科目中心의 基本圖書와, 둘째는 性理學中心의 儒家의 書, 셋째로는 이들 儒家의 文集等으로 構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燕山朝에 이르러서도 尊經閣에는 如前히 많은 數의 書籍이 備置되고 있었다. 이 때에는 冊이 많아서 他處에 빌려주는 事例도 자주 있었던 같다. 燕山君 5년에는 尊經閣의 書冊이 文武講經이 있을 때 마다 빌려 나가 많은 冊이 汚損되어 外部貸出을 中斷할 程度였다<sup>10)</sup>.

이렇게 많았던 冊도 40年을 채 保存하지 못하고 中宗 9년에 原因 모를 火災로 燒失되고 말았다. 火災는 同年12月2日 밤에 일어나 禁軍까지 急遽 動員하여 救火에 나섰으나 完全히 灰燼되고 말았다. 火災가 일어난 다음 날 同知成均館事 李站은 그 狀況을 다음과 같이 中宗에게 아뢰고 있다.

8) 本來 太學儒生의 定員은 200人이었으나, 世宗19년에 凶作으로 100人이 되었다가, 同21年 50人을 더 增置한 바 있으나, 그 후 經費의 不足으로 75人까지 減縮될 때도 있었다. 英祖 18年에 그 定員數를 100人으로 定한 바 있다. 一世宗實錄, 卷八十四, 二十一年乙未壬申條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三, 學校考二 參照.

9)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七, 學校考六 學令條.

10) 燕山君日記, 卷三十四, 五年己未八月己酉條.

「同知成均館事李祐啓曰 昨夜尊經閣失火 有儒生見其封鎖自若 而火自中起 祖宗以來所藏書冊 盡爲灰燼 臣等至爲痛心 是閣不連人家 無延燒之理 反覆思之 不知其由 疑必盜冊之人所致 講推廳直奴子等」<sup>11)</sup>

即 李祐은 尊經閣失火에 대하여 불은 平時와 같이 잠을 쉬가 잠긴 채 타고 있었다는 點, 그리고 이 閣은 人家와도 連해 있지 않아서 延燒의 理由가 없다는 點等을 들고, 火災의 原因은 알 수 없으나 필시 冊을 훔쳐내려는 者의 所致인 것 같다고 疑心하였다. 이 報告를 들은 中宗은 勿論이오 朝廷의 諸臣들도 이를 「斯文之大變」이라고 보고 驚愕을 禁치 못하였다. 中宗은 官員을 시켜 廳直奴子를 推鞠케 하였으나 그 原因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 同知事 南袞은 災變의 原因을 士習의 卑汚와 經學의 鹵莽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示戒라고 하고 王의 避殿減膳을 啓하고, 副提學 尹殷輔 等은 先聖의 慰安을 爲해 祭官을 보내어 祭祀를 지내야 한다는 등 이론이 紛紛하였다<sup>12)</sup>. 結局 中宗은 「此由予否德之致 而天之所以示戒極矣」라 하고 이 問題를 一段落지었다<sup>13)</sup>.

尊經閣이 火災를 當했을 當時 어느 度程의 書冊을 所藏하고 있었는지 그 確實한 數는 알 수 없으나, 「充棟經籍 盡隨以燼」<sup>14)</sup>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尊經閣 棟안에 가득찰 만큼의 많은 經籍이 收藏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뭏든 尊經閣의 災禍는 國家的으로도 큰 損失이었다.

#### ( 四 )

그後 尊經閣은 언제 再建되었는지 그 確實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中宗 實錄의 다음과 같은 記錄으로 보아 火災 直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禮曹啓 請構閣 備藏書籍 何如 傳曰 遣官致祭 構閣藏書 并依啓」<sup>15)</sup>

禮曹에서 위와 같이 啓한 것은 12月 2日 火災가 일어난 다음 날임으로 곧 構閣에 着手하였다면 當該年內가 아니면 늦어도 다음 해 봄까지에는 再建이 完成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sup>16)</sup>

11) 中宗實錄, 卷二十一, 九年甲戌十二月庚寅辛卯條.

12) Ibid. 卷二十一, 九年甲戌十二月甲午條.

13) Ibid. 卷二十一, 九年甲戌十二月乙巳條.

14) Loc. cit.

15) Ibid. 卷二十一, 九年甲戌十二月辛卯條.

16) 그러나 太學志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어 再建年代에 關해서는 앞으로 더 考究되어야 할 것 같다. 「中宗九年甲戌 本閣災 上下教求言 改建年月未攷」—太學志, 上編, 卷一 學舍條—

失火後 教育機關인 成均館에는 書冊이 全無함으로 朝廷에서는 이에 대한 緊急措置로 左議政 鄭光弼, 右議政 金應箕等이 다음과 같은 內容을 議啓하여 中宗의 允許를 얻었다. 卽 그 內容은 四書五經, 通鑑, 性理學大全等冊은 곧 印刊하여 收藏하고, 綱目과 歷代史, 諸子百家等の 무릇 雜冊은 文武樓에 所藏되어 있는 書冊들을 옮겨 놓게하고 그 밖에 없는 書冊들은 中國에서 質買하자는 것이었다<sup>17)</sup>. 따라서 尊經閣 失火 直後에 다시 蒐集된 書冊들은 四書五經等 20種 內外로 여겨진다. 앞에서든 言及한바와 같이 尊經閣에서는 教科書인 四書五經을 基本藏書로 삼았으므로 위와 같이 書籍을 다시 蒐集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언제나 그 첫 對象을 四書五經에 두었으며, 이러한 事例은 以後에도 자주 나타난다.

이때부터 壬辰亂으로 尊經閣이 다시 灰燼될 때까지 約 80年 동안 어떤 種類의 冊이 어느만큼 增加收藏 되어갔는지 이를 把握할만한 資料가 없어 그 追移를 알수 없다. 그리고 中國에서 質買한 書籍들이 또한 어떤것이며 얼마나 되는 것인지도 알수 없다.

이 期間中 尊經閣에 關한 記錄으로는 宣祖實錄에 中國의 使臣이 大聖殿에 謁聖하고 尊經閣에 保管 돼 있는 우리 나라의 五禮儀를 보았다는 간단한 記事가 있을 뿐이다<sup>18)</sup>. 이 記事를 通하여 우리는 다만 國家에서 刊行되는 國朝五禮儀와 같은 書冊들이 계속 尊經閣에 頒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따름이다. 이 國朝五禮儀는 언제 刊行된것인지 확실한 것은 알수 없으나 그 初刊本이 成宗 6年에 乙亥字로 印出된바 있으므로 이때의 刊本으로 예상되나 火災 以後의 것이므로 當初의 內賜本이 아님은 分明하다.

아mong 中宗 以後 宣祖初에 걸쳐 國家에서는 많은 書冊들을 刊行하였고 특히 中宗 11년에는 鑄字都監을 두고 丙子字를 鑄造하는 등 文化事業에 많은 힘을 기우렸던 時代였으므로 이 期間中에 蒐集된 尊經閣의 書冊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尊經閣은 壬辰亂을 당하여 또 한번 큰 禍를 입었다. 勿論 尊經閣 以外에도 大成殿, 明倫堂等 보다 큰 建物들도 이때에 破壞되었다. 우리의 文

17) 「左議政鄭光弼 右議政金應箕 左參贊張順孫 刑曹判書姜渾 校書館提調李坵 兵曹判書金詮 戶曹判書南箕 禮曹參議朴召榮等 議啓成均館書冊事 四書五經通鑑性理大全等冊 則印藏 綱目及歷代史諸子百家凡雜冊 則以文武樓所藏移送 他餘所無之冊 請質於中原 何如 傳曰皆依所啓」—中宗 實錄, 卷二十一, 九年甲戌十二月丁酉條一

18) 中國의 使臣이 謁聖後 明倫堂에 앉아 國朝五禮儀를 찾았을 때 館官等이 이를 周旋하지 못하고 使臣으로 하여금 尊經閣안에 들어가 冊을 찾게 하였다고 하여 同知事洪聖民以下 關係館官들이 罷職되고, 特別 司藝 韓孝友와 典籍徐進德은 下獄되기가까지 하였다. —宣祖實錄, 卷十六, 十五年十一月庚午 條參照

化財가 火災와 戰亂等으로 무수히 灰燼되어 갔음을 여기서도 또 한번 볼 수 있다. 戰亂이 스쳐간 이 땅에는 公共機關에 所藏되었던 冊뿐만 아니라 私家의 書冊들도 수 없이 散失되어 갔다. 當時 成均館藏書의 狀況을 宣祖 實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禮曹啓曰 今次文科別試 講經事已爲判下矣 經變以來 公私書冊 散失殆盡 成均館時存經書 不過一二件 故前者今兩湖監司 收聚上送事 啓下移文 而尚無一秩上送 弘文館侍講院所藏書冊 非徒件數不多 御覽及書筵之件 則不

<表 2> 壬辰亂後 成均館에서 入啓한 要求圖書

書 名	冊 數	印 送 地
詩 傳 大 學 中 庸 論 語 孟 子 家 禮	} 各二, 三件	忠清道 公州
大 學 中 庸 論 語 孟 子 周 易 (易學)啓蒙 十九史略(通攷)	} 各二, 三件	全 羅 道
詩 傳 書 傳 周 易 大 學 中 庸 論 語 孟 子 (資治)通 鑑(綱目) 家 禮 心經(附註)	} 各二, 三件	慶 尚 道

{ }는 筆者가 附加한 것임.



可用於試場 ……姑除講經 殿試及重試 次次進定 傳曰 勿施」<sup>19)</sup>

宣祖 30년에 實施키로 했던 文科別試를 爲한 講經도 書冊의 不足으로 延期되었다. 이때에 成均館에는 經書가 不過一二件 있을 따름이었다하니 戰亂으로 因한 被害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勿論 宣祖30年是 丁酉年으로 倭軍이 再次 渡來한 戰時中이기도 하였다.

倭亂이 끝난後 6年만인 宣祖37년에 成均館에서는 教育에 必要한 書冊을 다시 蒐集하고자 禮曹에 公文을 보내어 <表 2>와 같은 內容의 書籍을 各道에 依賴하여 印送토록 하였다<sup>20)</sup>. 當時 成均館에 새로 入學한 儒生들은 書籍의 不足으로 큰 困難을 받았던 모양이다. 特히 詩傳같은 冊은 閭閻間에도 絶無하였으며, 儒生들은 卷卷借讀 해야만 했다. 成均館에서 서둘러 冊을 求하게 된것도 이러한 緣由에서였다. 그러나 <表 2>에 나타난 바 諸要求圖書가 當時다 納本된 것 같지는 않으며 其中 忠淸道것만이 예 정대로 施行된 것 같다<sup>21)</sup>.

壬辰亂 以後 잇단 政治·經濟의 不安으로 大成殿과 明倫堂을 除外하고는 모두 그 復舊가 늦어졌으며 尊經閣의 重建도 仁祖 4年에 와서야 이루어졌다<sup>22)</sup>.

그러나 이보다 앞서 光海君 6年에 國家에서는 成均館의 左右挾室과 尊經閣의 建築을 爲해 材木까지 準備해 두고 있었으나 他處에 移貸됨에 따라 重建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 成均館에서는 尊經閣은 斯文의 根本之地인데 이와 같이 埋沒되어 있으니 많은 선비들의 羞恥요 國家 文教의 缺한바 이라고 하면서 急히 建築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學宮 建築用材木을 他處에 移貸한다는 것은 많은 儒生들에게 대하여 未安할 뿐만 아니라 또한 큰 失望을 주는 것이니 戶曹의 公事를 中止케 해 달라고 強力한 抗議를 하였다<sup>23)</sup>. 戰禍로 말미암은 財政의 窮乏은 이미 마련 되었던 材木까지도 더욱 急히 所要되는 他處에 移貸되어야 할 만큼 甚하였던 것 같다. 이와같이 尊經閣은 모처럼의 復設의 機會를 잃고 亂後30年 동안 거의 空白에 가까운 沈滯期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 期間中에도 尊經閣에 書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임

19) 宣祖實錄, 卷八十五, 三十年丁酉二月己丑條

20) Ibid. 卷一百八十二, 三十七年甲辰十二月丁未條

21) Loc. cit.

22) 「宣祖二十五年壬辰 又火於倭亂 至仁祖四年 丙寅重建」—太學志, 上編, 學舍條—

「壬辰倭亂, 文廟燬於兵火 我宣廟恢復還都 首議重營 大成殿建於萬曆辛丑 明倫堂成於 丙午 東西夾室及諸學舍 次第修改焉」—李廷龜 撰 文廟碑記

23) 光海君 日記, 卷七十九, 六年甲寅六月丙午條(太白山本)

시 復設된 尊經閣에는 그래도 扁額이 높이 걸려 있었고 陋汚된 冊이나마 若干帙備置되고 있었다. 이러한 事實은 光海君 13년에 中國의 使臣을 맞게 될 成均館에서 그 準備로 弘文館과 侍講院의 新刊 書冊들을 各一部씩 移置케 해 달라고 建議한 記錄 속에서 엿볼 수 있다<sup>24)</sup>. 이와 같이 尊經閣은 두번이나 災禍를 입으면서도 꾸준히 그 命脈을 유지하여 왔으며 또한 機會 있을때 마다 書籍의 蒐集保管에 힘써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뭏던 尊經閣의 策3期는 前後 두번이나 災禍를 입은 受難期였다고 할 수 있다.

### (五)

仁祖 4년에 重建을 보게 된 尊經閣은 점차로 書籍을 增加시켜 가기는 하였으나, 壬辰亂으로 因한 財政의 窮乏이 오래 계속된데다 이어서 丙子胡亂이 일어나고 痼疾化된 黨爭等 잇따른 政治的 不安과 社會 經濟의 混亂으로 좀처럼 회복이 안되었다. 冊이 기껏 많아야 幾百卷에 不過하였으나 創建當時의 水準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였다.

顯宗初에는 尊經閣의 藏書가 二三百件에 不過하였고 英, 正年間에 이르러서도 書冊의 數는 增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孝宗 10년의 尊經閣藏書는 大司憲 宋俊吉이 「書冊殘缺」이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또한 顯宗 4년의 記錄에서도 大司成 閔鼎重의 上疏에 「今本館所藏 不滿二三百件」이라고 있어 當時의 藏書數가 매우 貧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英, 正年間에 있어서도 書籍의 不足은 매양 마찬가지로 成均館에서는 자주 冊의 頒賜를 上疏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英祖 16년에 承旨 權赫의 啓에는 「卷帙本來不多 而經書尤爲散落」이라 하여 冊이 本來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는 冊도 모두 散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正祖元년에도 大司成 李佐簡은 尊經閣書冊 無一見存」이라고 하였고 同 14년에 와서도 大司成 李勉兢이 「百無一存」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어 좀 있었던 書冊들도 紛失되어 거의 保存된 것이 없을 程度였다<sup>26)</sup>. 成

24) 「成均館啓曰, 明倫堂東北隅, 有閣曰尊經, 亂離之後, 僅得復設, 扁額高懸, 而只有陋汚若干卷帙, 詔使善或聞見, 則不亦埋沒乎請弘文館侍講院新秩, 經筵書筵件外 四書六經及百家諸子史, 除異端及我國之書, 各一件姑令移置, 以備萬一之虞」—光海君日記 卷一百六十三, 十三年辛酉三月庚申(鼎足山本)—

25) 孝宗實錄, 卷二十一, 十年己亥二月己巳條: 增補文獻備考, 卷二百三, 學校考二: 顯宗實錄, 卷七, 四年癸卯八月丁酉條

26) 大學志, 下編, 卷之七, 書籍條: 正祖實錄, 卷二十九, 十四年庚戌二月乙亥條

均館에서는 教育에 必要한 書籍의 不足을 解決하기 爲한 한 方法으로 顯宗때 부터는 枚書館에서 찍어 내는 모든 冊의 一部를 大學에 納本하도록 建議하여 이를 永久 定式化하기도 하였다<sup>27)</sup>.

이와같이 重建後의 尊經閣藏書는 歷代大司成들의 藏書蒐集에 대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創建初期의 그것과 比할만한 것이 못되었으며, 이미 收藏되고 있었던 書冊의 保存도 제대로 典守하지 못하였다. 卽 正祖14년에 前記한 大司成 李勉兢은 그의 啓에서 尊經閣에 當初 頒賜된 書冊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典守에 힘쓰지 않아 百無一存이니 通讀月課를 當할 때 마다 四書三經을 藝館에서 빌려와야 함으로 몹시 구차스럽다고 하고 書籍의 보다 철저한 保管을 爲해 司成은 三司中에서 適任者를 뽑아 久任으로 하고 直講·典籍의 職도 久任으로 고쳐 書籍事務를 分掌케 해야한다고 建議한바 있었다. 卽 書籍의 徹底한 保存管理를 爲해 職制를 더욱 強化할 것을 建議한 것이었다. 正祖는 이를 允許하고 書籍保管에 관한 責任은 公貨의 不謹典守律을 適用 嚴重히 다스리게 함으로서 書籍保管에 대한 規律을 한층 強化하였다<sup>28)</sup>.

이러한 事實을 通하여 우리는 當時 書冊의 保存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뿐만 아니라, 官學의 頹廢 또한 얼마나 極甚하였는가를 아울러 짐작할 수 있다. 歷代로 累積돼 내려온 官學의 頹廢는 이때에 와서 더욱 甚해져 갔으며, 한편 仁祖 以後 肅宗朝에 이르는 동안 各地方에는 私學教育機關인 書院이 그 어느때 보다도 數가 增加되어 書院疊設의 弊端이 莫甚한 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地方의 有數한 書院들은 藏板閣, 文庫等を 두고 있었고, 書冊의 保有量도 많은 곳은 千餘卷 內外가 되었으니, 이때의 中央의 官學인 成均館의 貧弱한 尊經閣藏書에 比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圖書館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그것이 屬해 있는 機關의 教育狀況을 잘 反映해주고 있는 것이다.

〈表 3〉은 仁祖—高宗年間의 尊經閣에 關한 主要記錄들을 參考하여 枚書館等으로부터 寄贈 받은 書冊을 年代順으로 作成한 一覽表이다. 勿論 여기에 나타난 書冊以外에도 國家에서는 많은 冊을 이기간中에 印出하여 냈으므로 頒賜된 書冊도 또한 훨씬 많았을 것이 分明하지만 當時의 書冊으로 現在까지 傳存되어 내려오는 것이 全無하고 이에 대한 參考할만한 文獻도 적어서 이를 다 알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表에 나타난 書冊들은 頒

27) 顯宗實錄, loc. cit.

28) 正祖實錄, loc. cit.

〈表 3〉 尊經閣 頒賜書冊 및 藏書狀況一覽(孝宗—高宗年間)

年 度	書 名	冊數	尊 經 閣 藏 書 狀 況	摘 要
孝宗10年(1659)			書冊殘缺	宋俊吉의 啓에 따 라, 今後頒賜되는 冊을 封進할때 마 다 政院에서는 그 一部를 太學에 頒 送토록 하였음.
顯宗 4年(1663)			不過二, 三百件	閱鼎重의 啓에 따 라 校書館에서 印 出되는 冊마다 그 一部를 成均館에 보내도록 하였음.
英祖16年(1740)	大學	數部	經書散落	校書館印
	中庸	"		"
	論語	"		"
	孟子	"		"
	詩傳	"		"
	書傳	"		"
	周易	"		"
				以後 京外에서 新 刊되는 冊子들은 太學에 보내도록 하였음.
英祖31年(1755)	蘭義昭鑑 4卷3冊	1部		
英祖35年(1759)	續自省編	"		
英祖41年(1765)	文廟享祀錄 1冊	1部		
英祖51年(1775)			書籍不備	館儒 韓永運의 請 에 依하여 八道에 分付하여 書冊을 印送하도록 하였 음.

正祖即位年 (1776)	討逆繪音	1 部		
正祖元年(1777)	明義錄 2卷 3冊	1 部	書冊無一 見存	李佐簡의 啓에 依하 여 英祖51년에 分 付한 書冊印送件 에 대하여 施行되 고 있지 아니한 嶺 南에 催促을 命함.
正祖 6 年(1782)	國朝寶鑑 68卷 22冊	1 秩		
正祖 8 年(1784)	奎章閣志 2卷1冊	1 部		
	弘文館志 1冊	1 部		
	貽燕繪音	1 "		
正祖14年(1790)	經書 韻冊	各 2 部 各 5 部	百無一存	李勉兢의 啓에 따 라 北漢所在 經書 와 韻冊을 印送케 하고, 書籍의 典 守를 強化시킴.
純祖 8 年(1808) 5 月 12日	七書俱解	"		大邱印
	皇極經世書	"		"
	周禮	"		高靈
	文公家禮	"		興陽·星州
	近思錄	"		潭陽·禮山
	近思錄釋疑	"		江陵·海州
	朱子大全	"		全 州
	中庸或問	"		"
	心經釋義	"		"
	資治通鑑綱目	"		"
	心經	"		星 州
	禮記	"		南 原
	易學啓蒙	"		" "
	朱書節要	"		錦山·禮安
	理學通錄	"		禮 安

<p>高宗 6 年(1869)</p>	<p>退溪言行錄 濂洛風雅</p>	<p>” ”</p>	<p>安東 泰仁 內閣에 命하여 書籍을 尊經閣에 分送케 하고 이를 掌議가 主管하도록 하였음.</p>
<p>高宗16年(1879) 高宗23年(1886)</p>		<p>312冊盜難 典守久弛 散失居多</p>	<p>尊經閣에 대한 正祖때의 制度를 補完하여 그 典守를 嚴하게 다스리게 하였음.</p>

賜 또는 寄贈된 書冊中の 극히 一部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이 表를 通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事項을 指摘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藏書는 李朝後期에 들어 와서도 四書五經等經書類와 歷史類 위주로 構成되었다는 點, 둘째 成均館에서는 地方의 書院과는 달리 전혀 書籍의 刊行이나 交換을 하지 않았고 다만 一方的인 寄贈에만 依賴하여 왔다는 點, 셋째 正祖14年 까지는 書籍의 保管이 허술하여 紛失圖書가 많았다는 點, 따라서 그 以後는 書籍의 保管을 爲한 強硬策을 取함으로서 多少增加의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는 點等을 들수있다.

純祖를 거쳐 高宗에 이르기까지 과연 書冊이 어느程度 增加되어 갔는지 그 確실한 內容을 알수는 없다. 高宗16年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尊經閣 書籍盜難事件을 通하여 그 一部를 짐작할수 밖에는 없다. 承政院日記에는 이때의 書籍盜難事件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李秀萬以禮曹言啓曰. 即接入直郎廳所報 今月二十六日 尊經閣外門墻 忽有殊常之跡 故因即奉審 內門鎖鑰破碎 所奉冊子見失 至於三百十二卷之多云矣」<sup>29)</sup>

위의 引用文에서 볼수있는바와 같이 盜難은 高宗 16年 4月 26日에 當하였으며, 盜難 當한 書冊數는 모두 312卷으로 잠을쇠를 破碎하고 훔쳐갔다. 그리하여 尊經閣庫直 李和錫은 大明律의 「倉庫不覺被盜條」를 適用하

29) 太學志, 增補文獻備考, 李朝實錄, 日省錄에 根據하여 作成한것임,

30) 承政院日記, 光緒五年己卯四月二十八日條, 日省錄, 高宗十六年己卯四月二十八日條

여 杖一百後 三年徒刑을 받고 黃海道兎山縣에 流配되었다.<sup>31)</sup>

이 報告에 나타난것 만으로서는 盜難當한 312卷이라는 冊이 當時所藏하고 있었던 全體冊數의 어느 程度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分明치 않다. 비록 盜難 當한 312卷이 當時 尊經閣藏書의 大部分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重建後 藏書가 가장 많았다고 여겨지는 顯宗 때의 「不滿二三百件」에 比하여 큰 差異가 없는 冊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正祖 以後 職制를 改編하여서 까지 書籍의 保管에 힘을 기울여 왔다는點, 그리고 書籍刊行에 있어서도 正祖以後 高宗朝에 이르는 동안 國家에서는 勿論이고 私學教育機關이나 門中等에서 매우 활발하였고 特히 文集類의 刊行은 前期에 比해 더욱 盛行하였다는 點等을 考慮한다면 이 當時 잃은 書冊은 全體에 가까운 數라기 보다는 그 半數에도 未達되는 一部로 보는것이 妥當할것 같다.

高宗中期부터는 尊經閣의 書籍保管이 다시 解弛해지기 시작하였다. 高宗 23年에 沈舜澤은 「근래 몇해동안 尊經閣의 典守가 解弛되어 散失된 書冊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正祖 때 館官을 另擇하고 齋任을 嚴選하여 久任케 함으로서 典守를 嚴하게 하였음을 例로 들면서 「舊規를 申明하여 典守에 관한 새로운 規律을 特別히 定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高宗은 「先令查覈 補其缺漏 嚴其典守可也」라 하고 尊經閣의 典守를 嚴重히 할것을 命하였다<sup>32)</sup>

이렇게 하여 藏書는 계속 保存되고 增加되어 갔으며 尊經閣藏書는 다음 純宗代를 거쳐 1911年 日帝下에 運營하게 된 經學院의 基本藏書로 移管되어 學院圖書館으로서의 구실을 맡게 되었다.

## ( 六 )

以上과 같이 尊經閣藏書에 관하여 概略의이기는 하나 年代順으로 考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尊經閣은 繼續의인 書籍의 不足으로 말미암은 教育上의 弊端과 矛盾을 解消하려는데 그 設置目的이 있었다.

(2) 尊經閣의 藏書構成은 歷代를 通하여 四書五經 및 諸史가 基本圖書였고 그 밖에는 性理學中心의 儒家의 圖書와 文集類이고, 佛敎는 勿論 老莊 및 其他雜流의 書는 禁止되었으며 農學·醫學等의 技術系書籍도 또한

31) 承政院日記, loc. cit.

32) Ibid. 光緒十二年丙戌正月二十七日條

收藏하지 않았다.

(3) 尊經閣에 藏書가 가장 많았던 때는 設置年代인 成宗 6年에서 火災로 燒失케 된 中宗 9年까지였다.

(4) 書籍의 蒐集에 있어서는 멀리 中國에서까지 買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頒賜 또는 寄贈에 依賴하였으며, 地方 書院의 경우와 같이 自體에서의 書籍刊行이나 或은 圖書의 相互交換에 依한 圖書의 增加는 없었다.

(5) 尊經閣은 壬辰倭亂等 前後 두번이나 큰 災禍를 입으면서도 꾸준히 그 명맥을 維持하여 왔고 李朝 最高의 國立教育機關인 成均館의 附屬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계속 發揮하였다.

(6) 重建後의 尊經閣藏書는 前期에 比해 紛失이 甚하여 量的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 原因은 주로 累積되어 온 官學의 頹廢와 管理의 疎忽에 있었다.

(7) 따라서 重建後는 紛失圖書를 방지하기 爲해 職制를 強化하였고, 한편 圖書의 增加策으로는 納本制度를 實施하는 등 前期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現象들이 그 特色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8) 圖書館은 그것이 屬해있는 教育機關의 教育狀況을 가장 잘 反映해 주고 있다는 事實을 尊經閣의 경우에서도 또한 볼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太學志

徐居正 撰, 尊經閣記(四佳文集所錄)

李廷龜 撰. 文廟碑陰記(朝鮮金石總覽, 下卷所錄)



## The Collection of Jon Gyung Gak

by Choon-hee Lee

Jon Gyunk Gak established in 1475 was the library of Sung Kyun Kwan which was the only university in the period of Yi Dynasty. For the study of library histories of Korea, particularly the libraries of high learning institutions the Jon Gyung Gak library acquires a greater importance.

The collection of Jon Gyung Gak consisted mainly of Chinese classics such as the works of Confucius, Mencius, or the books about histories which were the textbooks of students in those days. But the books about Laoism or Buddhism were strictly forbidden, and also books like medicine or agriculture pertaining to technical sciences were disregarded.

The Jon Gyung Gak was destroyed by fire in 1514 and suffered severely again by the Im Chin War in 1590's, but the library had been made constant efforts to maintain its collections for the performance of educational functions.

This paper gives special emphasis to analyzing the collection of Jon Gyung Gak by its chronological order.